

브라질 닭고기 산업의 현황과 전망(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난호에 이어서…

라. 수출 실적

최근의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수출액을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960천톤, 1,799백만 달러(약 2조 1,588억원 : 1달러 = 1,200원)에서 2009년에는 3,635천톤 5,814 백만 달러(약 6조 9,786억원)로 지난 7년간 수출량은 85%, 수출액은 2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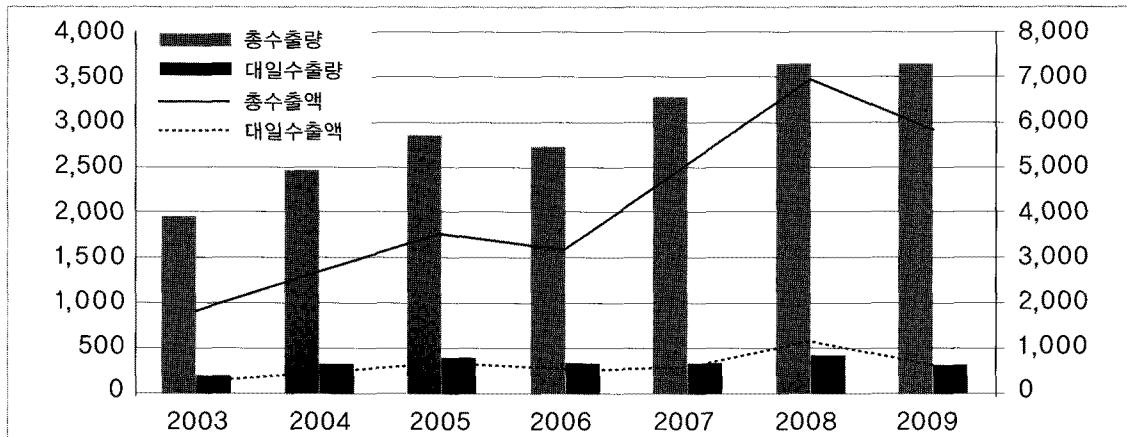
생산 규모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2006년에는 수출량이 4.6% 감소, 수출액

도 8.5% 감소했으며, 2009년에도 수출량 0.3%, 수출액 16.3%가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2006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은 남부가 5,300백만 달러(약 6조 3,600억원)로 이 지역만으로도 연간 총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의 76.3%를 차지했다.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에서 육상운송비가 선적 가격의 6%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항에 가까

〈그림 6〉 수출 상황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달러)



*주 :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합계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표 6〉 2008년 지역별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지역	주	수출액
남부	계	2,299,636(76.3)
	파라나	1,806,531(26.0)
	산타카타리나	2,042,372(29.4)
	리오그란데술	1,450,733(20.9)
남동부	계	744,955(10.7)
	상파울로	548,388(7.9)
	미나스제라이스	196,567(2.8)
중서부	계	773,949(11.1)
	고이아스	292,450(4.2)
	매트그라소드술	275,378(4.0)
	매트그라소	206,121(3.0)
기타		130,243(1.9)
전국		6,948,783(100.0)

※주 :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합계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운 지역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게 되어 수출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UBA 등의 2008년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수출에 있어서도 국내 생산과 마찬가지로 상위 2개 회사인 브라질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연간 수출량의 6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 보다도 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 중 냉동 부분육은 52%, 냉동 지육은 32%를 차지하여 국내 소비 경향과는 달리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이 수출에 있어 수익의 주체가 된다. 앞으로 업계의 구조개혁이 한층 진행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이나 협

동조합과 함께 해외자본에 의한 다각적 경영 기업인 브라질 타이슨사의 움직임에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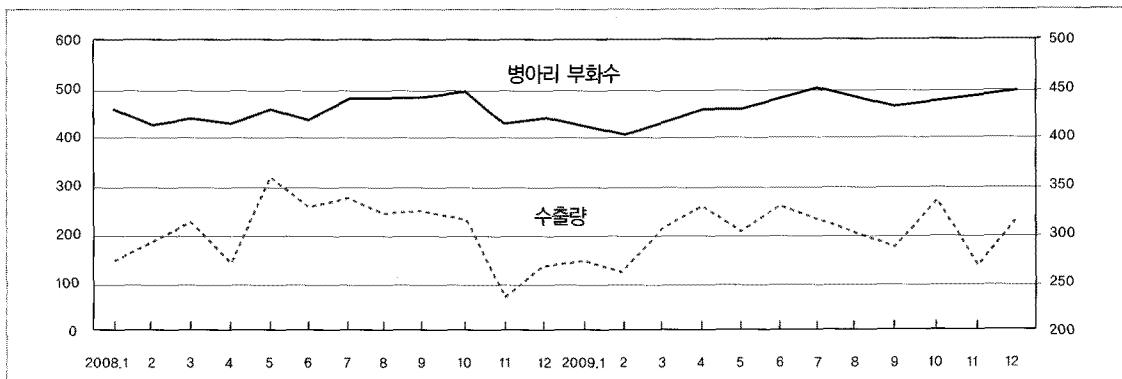
2008년에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진출한 브라질 타이슨사의 동년 수출실적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2010년에는 EU 수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산타카타리나주 이타이오플리스에서 신규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2. 최근 수급 동향 -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이처럼 브라질 닭고기 산업은 최근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닭고기

〈그림 7〉 병아리 부화 마리수와 수출량 추이

(단위 : 백만 수, 톤)



※주 : 병아리 부화수 2009년 11월, 12월 추정치

※자료 : 브리질양계협회, 브라질 브로일러용 병아리 생산자협회(APICO)

수출량 세계 제 1위인 브라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은 5월 361천톤, 상반기(1~6월)에는 1,842천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1% 증가하는 등 순조로운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9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보고되면서 해외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11월에는 235천톤으로 감소하는 등 5월~11월까지 6개월간 34.9%로 대폭 감소했다.

수출감소로 인해 국내 시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력상품인 냉장 지육가격이 8월에는 kg당 3.1레알(약 2,102원)에서 11월에는 동 2.76레알(약 1,872원)까지 11.0%나 하락하는 등 국내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UBA에서는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까지 사육마리수를 20% 감

소시키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이로 인해 병아리 부화 마리수는 2008년 10월 496.2백만 마리에서 2009년 2월 406.9백만 마리로 18.0% 감소했다. 2008년 12월의 국내 냉장 지육가격은 병아리 공급마리수 감소와 연관 수요 증가와 더불어 동 3.07레알(약 2,082원)로 11월에 비해 11.2%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2009년 2월에는 국내 가격과 수출량 모두 반등하여 5월까지 회복 경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에 중국이 브라질의 26개 시설에 대해 닭고기 수출 인정 허가를 실시하여 2009년 후반에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생겼다. 이 때문에 수출용 닭고기를 확보한 후 생산을 증가시켜 7월에는 병아리 부화 마리수가 2월보다 22.9% 증가한 500만 마리가 되었다.

〈표 7〉 수출지 국별 수출 상황

(단위 : 천 달러, 톤, 달러/kg, %)

구분	수출국	2008년			2009년			2008/2009 증감률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냉동통닭	사우디아라비아	529,745	318,372	1.7	543,821	398,772	1.4	102.7	125.3
	베네주엘라	508,106	30,283	1.7	290,271	164,310	1.8	57.1	54.3
	아랍에미리트	231,052	138,310	1.7	182,071	135,884	1.3	78.8	98.2
	쿠웨이트	219,944	130,259	1.7	190,001	148,526	1.3	86.4	114.0
	예멘	89,958	50,397	1.8	88,373	67,270	1.3	98.2	133.5
	기타	628,238	396,268	1.8	632,144	483,574	1.3	100.6	122.0
	합계	2,207,043	1,336,465	1.7	1,926,681	1,398,336	1.4	104.6	104.6
냉동부분육	일본	1,158,940	417,429	2.8	611,118	302,585	2.0	52.7	72.5
	홍콩	557,575	410,605	1.4	580,349	421,729	1.4	104.1	102.7
	러시아	242,651	120,614	2.0	103,540	65,627	1.6	42.7	54.4
	사우디아라비아	198,546	78,227	2.5	196,072	94,383	2.1	98.8	120.7
	네덜란드	178,726	61,068	2.5	171,633	67,102	2.6	96.0	109.9
	기타	1,275,745	841,082	1.5	1,222,876	911,708	1.3	95.9	108.6
	합계	3,612,183	1,929,025	1.9	2,885,588	1,863,134	1.5	79.9	96.6

*자료 :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그렇지만 중국의 수출수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 역시 마찬 가지였다.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을 중심으로 수출해 온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져 2009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7.3% 감소한 611백만 달러(약 733억원), 러시아에는 전년대비 57.3% 감소의 104백만 달러(약 125억원)였다. 이에 따라 2009년 브라질 닭고기 산업의 수출수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국내 시장을 보면 6월과 7월에는 수출용으로 들어가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자 가격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중국 시장을 예상하여 생산한 닭고기

잉여분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 가격이 다시 하락했다. 따라서 2009년에는 국내 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3.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

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연습

브라질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확인된 바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생산활동 제한 조치가 강요 되기 때문에 남부처럼 닭고기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지금 까지 경험으로 보아 브라질 양계현장에 있어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브라질 농무성(MAPA)은 만일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말에 파라나주 샤바우자시에서 최초로 방역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은 MAPA와 판아메리칸 구제역 협회 공동개최 하에 수의사, 육군병사, 군경찰, 양계관계자, 현지 시청 및 국내 8개주의 농무부 등 총 180명이 참가하여 파라나주 내의 양계장 7개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연습 당일 소독팀, 검사팀, 폐사체 처리팀 등으로 나누어 발생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3km의 이동제한지역과 반경 10km의 반출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바이러스를 지역 내에 묶어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재 육성과 시뮬레이션 검증에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연습이 진행되었다. 현재 MAPA에서는 이번 연습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나. 주요국에 국제 교섭전문관 배치

2009년 MAPA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스위스,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일본, 미국

등 8개국 브라질 대사관에 무역관련 국제교섭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농업 아타셰(전문관)를 배치하기 위한 선발을 실시했다.

이 교섭전문관은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근거하는 문제 등 무역장벽과 관련된 일이 새로 발생할 경우 기술적 지식을 발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MAPA 애그리 비즈니스 국제교류국의 세리오 포르트 국장은 연말 정부홍보 인터뷰에서 “브라질 무역교섭에는 농업분야 전문 기술 지원이 부족했다. 앞으로 아그로비지니스 교섭에는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 전문가는 필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 신규시장 개척

매년 4월경 브라질 개발상공성 무역촉진국(SECEX)은 무역촉진에 관한 행동계획을 공표하여 분야별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인데, 이에 앞서 브라질 닭고기수출업자협회(ABEF) 등 업계 단체는 2010년 2월 앞의 국제교섭 전문관 8명에 대해 브라질 닭고기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요점을 설명한 바 있다.

ABEF의 시장개척 매니저에 의하면 “2010년은 2009년에 수출량이 감소한 일본,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의 회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는 2014년 월드컵 대회, 2016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내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전체가 밀물 분위기인 가운데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이 물결을 어떻게 이용하여 다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복을 기대하면서 2009년에 실적이 늘지 않았던 중국은 물론, 인도, 아프리카 여러 국가(수단 등), 이슬람권 여러 국가(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가격이 비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맷음말

최근 세계 규모로 성장한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지만 이와 같은 성장이 처음부터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가을 국제금융위기는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해외시장 냉각에 의한 수출량 감소, 국내외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감소, 금융 파생상품에 의한 고액 손실 및 이에 따른 업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전반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만 가는 닭고기 생산량을 감축한다

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국내 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작년에 있었던 시장 축소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나 수송비를 어디까지 절감할 수 있을지,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기업 통합 및 제품 다양화가 얼마나 진전될지, 해외시장의 신규개척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매우 많다.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는 2014년 월드컵 대회, 2016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내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전체가 밀물 분위기인 가운데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이 물결을 어떻게 이용하여 다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